

(미래정책연구실, 2009.06.22)

□ 추진 배경

○ 품목별 조직화의 필요성

- 소규모 고령농 위주의 농업구조에서 농가 단위의 규모화가 어려움
- 이에 품목별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조직별로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부분 발생
- 시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품목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품목 조직의 필요성 대두
-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조직 통합 및 참여농가 확대를 통해 품목별로 산업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대표조직 설립을 제안

□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 대표조직 기본 발전 방향

- 1단계: 조직화 정도에 따라 R&D 과제선정, 자조금 조성 등의 권한과 책임을 대표조직에 부여
- 2단계: 품목조직 스스로 수급조절,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당면 문제 해결

○ 대표조직의 역할 및 기대효과

- 생산과 유통의 규모화, 체계화 달성
- 자율적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도모
- 공동출하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 공동 브랜드, 공동 홍보 등 판촉활동을 통한 수요확대
- 가공기술 R&D 과제 제안 및 참여
- 구성원 교육훈련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산업 육성방향 등 주요정책과제 협의, 결정

- 정부 사업물량 배정 및 추천권 부여 등

○ **대상품목의 선정**

- 생산액 3,000억원 이상이고 수출가능성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식량 1개, 채소·특작 9개, 과수·화훼 6개, 축산 7개, 수산 6개 등 총 29개 품목을 선정
- 감귤과 넙치 2개 품목은 대표조직이 이미 설립되어 있음.

표 1. 대표조직 육성 대상 품목

구분	품목수	품 목
식량	1	쌀
채소·특작	9	고추·버섯·배추·딸기·토마토·파프리카·인삼·마늘·양파
과수·화훼	6	사과·배·감귤·포도·단감·백합
축산	7	한우·돼지·닭·계란·우유·양봉·오리
수산	6	넙치·전복·김·고등어·멸치·오징어
계	29	

□ **품목별 추진 일정 및 방안**

○ **대표조직 설립 추진 일정**

- 쌀을 제외한 28개 품목의 대표조직 연내 설립 목표
- 쌀은 내년 상반기에 대표조직 설립

(1) **식량**

○ **쌀**

-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을 생산부문 대표조직으로 설립
- 농협RPC운영위원회 등을 가공·유통부문 대표조직으로 설립
- 생산부문과 가공·유통부문 대표조직을 이원화하여 육성한 후 2010년 상반기에 두 조직 통합

	농협RPC 협의회	대한곡물 협회	RPC 협의회	양곡가공 협회	쌀전업농 연합회	쌀가공 식품협회
구성	RPC 165개소	RPC70개소, 정부양곡 도정공장· 보관창고 800개소	RPC31개 DSC6개	RPC13개소 DSC6개	쌀전업농 67천호	업체 563개사

(2) 채소·특작

○ 배추

- 무·배추전국협의회,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겨울배추생산자단체를 통합해 '(가칭)한국배추생산자연협회' 설립

	무·배추전국협의회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겨울배추생산자단체
재배시기	봄, 가을	여름	겨울
구성	86개 지역조합	26개 지역조합	5개 지역조합
사업량	44천톤	42천톤	45천톤

○ 고추

- 고추전국협의회(농협조직)와 고추총연합회(영농조합법인 연합체)를 통합해 '(가칭)한국고추산업연합회'

	전국고추 생산자협의회	대한고추 총연합회	고추연구회	(사)한국고추 가공협회
구성	112개 지역농협	10개 영농조합법인	300명 (산,학,관,연)	50개 수입가공업체
주요기능	수급조절	고품질 고추 생산,유통 회원간 정보교류	기술연구 정보교류	수입고추 유통질서 확립

○ 토마토

- 농협 중심의 (사)한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를 주축으로 관련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을 통합

	(사)한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
구성	95개 농협
구성원 생산량	172천톤 (전체 생산량의 40%)

○ 딸기

- 기존의 (사)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 중심으로 통합

	(사)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
구성	63개 농협
구성원 생산량	116천톤 (전체 생산량의 57%)

○ 파프리카

- 기존 자조회 중심의 확대

	한국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구성	477여 농가
구성원 생산량	전체 생산량의 93%

○ 버섯

- 기존 (사)전국버섯생산자협회를 포괄하는 ‘(가칭)버섯유통위원회’ 구성

	(사)전국버섯생산자협회				
	팽이	새송이	느타리	양송이	기타
농가수	54호	542호	3,805호	657호	1,057호
생산량	37톤	46톤	46톤	11톤	6톤

○ 인삼

- 현재 전국단위로는 생산 분야 2개, 가공 및 수출 분야 2개, 학술 분야 2개 단체가 사단법인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
- 기존조직을 유지한 채 상위의 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중심조직에 다른 조직을 흡수하여 기능을 재편하는 통합 방식 등을 고려중

○ 마늘

- 기존 한국마늘생산자협의회 중심의 ‘한국마늘산업연합회’ 설립

- 한국농산물냉장협회 등의 기능단체는 분과위로 참여

○ 양파

- 농협 중심의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를 양파 유통·가공영농조합이 포함된 조직으로 확대

(3) 과수·화훼

○ 사과

- 과수농협연합회와 사과전국협의회를 통합한 가칭 ‘(사)사과연합회’ 설립

	사과전국협의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구성	37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	6개 품목조합
참여농가수	22,585호	23,956호
구성원 생산량	205천톤	283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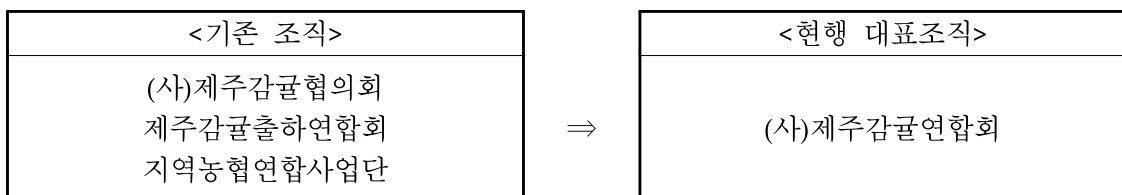
○ 배

- 과수농협연합회와 배전국협의회를 통합한 ‘배전국연합회’ 설립

	배전국협의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구성	39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5개 품목조합
참여농가수	26천호	6천호
구성원 생산량	386천톤	150천톤
기능	교육, 홍보 등	자조금, 묘목·브랜드사업 등

○ 감귤

- '08.12.19일자로 (사)제주감귤연합회 법인을 설립하여 감귤 대표조직을 결성



○ 단감

- 현재 주산지 지역농협 위주로 참여하는 전국 조직 ‘단감생산자협의회’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표조직 설립

구분	단감생산자협의회
회원조합수	45개 지역조합
구성원 생산량	187천톤 (전체 생산량의 90.3%)
역할 및 기능	수요창출을 위한 홍보 등
운영 자조금 규모	431백만원 (보조204, 자체227)

○ 포도

-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와 한국포도회를 통합한 ‘(가칭)포도생산·출하연합회’ 설립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사)한국포도회
회원조합수	37개 조합	30개 지부
참여농가수	2만6천호	2,977호
구성원 생산량	245천톤	31천톤

○ 백합

- 현재, 작목반, 수출전문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별로 소규모 조직화
- 기존조직의 연합화, 통폐합 등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 ‘(가칭)전국백합생산자연연합회’ 설립

(4) 축산

○ 한우

- 기존의 한우 농가 조직은 지역축협과 전국한우협회로 대별됨.
- 지역축협은 119개 조합, 138천 농가가 19,29천두 사육 중임.
- 한우협회는 9개 도지회, 130개 시군지부, 2만 농가 참여
- 한우 대표조직으로 시군한우사업단, 광역한우사업단, 대형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을 육성
- 이달 중으로 ‘시군 및 광역한우사업단’을 우선 발족하고, 연내에 사

업단에서 생산한 한우를 전담 판매하는 대형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설립

○ 양돈

- 현재의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대표조직으로 육성
- 농협중앙회, 양돈조합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협 안심포크 활성화
- 현재 53개의 농협 자체 브랜드를 2~3개로 통합

○ 우유

- 기존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보완
- 전국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연합쿼터관리체계 구축, 가격 산정체계 개선, 가공원료유 공급 제도 도입, 집유체계 개편, FTA 대책 추진 등의 과제 추진

○ 육계

- 현재의 육계의무자조금 조직을 '(가칭)한국육계자조회'로 육성

○ 계란

- 현재의 산란계의무자조금 조직을 '(가칭)한국산란계자조회'로 육성

○ 오리

- 오리 분야에 의무자조금 도입을 구상중이며, 자조금 조직을 '(가칭)한국오리자조회'로 육성

○ 양봉

- '한국양봉협회'를 '(가칭)한국양봉자조회'로 육성

□ 분야별 반응 (여론종합)

○ 농산 분야

- 조직별, 지역별 농업환경과 경영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전국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농식품부가 대표조직의 일부 구성원들만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처지의 구성원의 이익이 모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쌀의 경우, 생산자, 농협RPC, 민간RPC 등 각 단체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어려울 것임.
- 대표조직이 수익성 위주의 획일적인 운영시 생산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농가들이 종속될 우려가 있음.
- 공익적 성격이 강한 농협과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일반법인이 단일조직으로 묶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호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많음.

○ 축산 분야

- 대표조직 육성으로 업계의 조직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 일부 축종의 경우 의무자조금 조직을 대표조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 생산자단체들을 통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
- 가금류 중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지 않았거나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므로 연내 대표조직 설립은 현실적으로 촉박함.
- 대표조직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음.
- 한우협회 등 기존 조직이 잘 갖추어진 경우 그 조직을 대표로 육성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조직간 분란 우려
- 우유의 경우 낙농진흥회 차원에서 집유일원화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 대표조직 육성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
- 양계협회는 대표조직 육성에 따른 정책 방향이 대형닭 위주 생산전환, 닭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등 협회와 큰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

- 오리협회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므로 별도 조직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협회가 대표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응

○ 기타

- 소규모 영세농이 많은 농업 여건에서 이들을 대표조직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대표조직이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설립 이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필요
- 획일적 대표조직 설립보다는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성 필요
- 기존 품목 단체들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들을 단일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 대표조직 육성이 특정 품목의 입장이 아닌 농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정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일선 농가 및 단체들의 혼선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번 정책도 급작스레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